

평소에 하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

· 과학기술부 원자력사무관
·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원
·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장
· 국무총리실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위원회 위원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13~)

산업부는 지난 8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선언하였다. 이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이는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선언한 탈원전 정책의 이름만을 단순히 바꾼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탈원전 정책의 포장지만 바뀐 것일 뿐이다.

사실 독일과 영국이 모두 '에너지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독일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국은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이러한 재생에너지 지원이 발전을 하지 못하는 동안 원자력 발전이 예비 발전원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예비 발전원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Zero emission policy'가 전제된 것이다.

따라서 산업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국민을 모호성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준비도 매우 미흡하다.

보조금을 통하여 수지를 맞추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민간 자본이 투입되면서 무턱대고 증설함에 따라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LNG 예비 발전기의 확대, 전력 생산의 간헐성 보완을 위한 전력망 비용의 증가 등 많은 준비가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이러한 기술적 준비를 연구개발을 통하여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수입하여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국내 기술 축적 없이 국부만 유출될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과의 소통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원자력의 역할은 꾸준히 안전하게 그리고 값싸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 인식이 바뀌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정책이 아니다. 탈핵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폼파 노력, 나쁜 소식과 자극적인 소식만 전하는 언론의 속성, 정치권의 프레임 전환에 빈번히 원전을 활용,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원자력계의 미온적 대응 등 다양한 요소가 장기간 축적된 결과이다.

물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균형 잡힌 여론 조사의 결과 원전 비중의 유지 또는 확대를 원하는 국민이 축소를 원하는 국민보다 4.8% 많았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원하는 국민이 중단을 원하는 국민보다 9.0% 많았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론화의 과정을 통하여 20대와 30대의 의견이 돌아서서 결국 건설 재개가 중단보다 19%가 많아졌음을 상기한다면, 그간 원자력계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는 뻔한 원자력 발전의 장점을 설파한 것이 아니라 원전이 감소하고 결국 LNG 발전소가 늘어나는 정책임을 지적하였다. 또 원자력 발전을 통하여 재생에너지가 지원되고 있으며 탈원전 단체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드러낸 결과임을 감안하면 대중과의 소통을 단순히 늘려나가는 것보다 소통을 질적으로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되었지만 후속기 건설이 보이지 않는다. 영국 원전은 너무 멀다. 원자력산업과 기기와 기술의 공급망(Supply chain)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시기에 원전 수출도 해야 할 것이다.

주문

원자력계에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다.

첫째, 지금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평화의 시기가 아니다. 평소에 하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정치인에게 소리를 내지 않는 국민은 국민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 정부의 울타리에 갇혀서 양육되던 가축의 모습으로서는 이 시기를 넘어서기 어렵다. 적대적 울타리일지도 모르는 울타리에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셋째, 공부를 해야 한다. 울타리가 없어도 살려면 세상을 알아야 한다. 전기를 팔면서 전력시장을 모르고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과학이라면서 정치를 모르고 행정을 모르면 울타리 없이 살지 못한다. 자기 전문 분야만 알고 인접 분야를 모르면 안된다. 또 전문 용어만 알고 이를 국민에서 설득할 능력이 없다면 공공 부문의 지원을 받을 자격은 없다.

넷째, 자긍심을 가지라는 것이다. 원자력계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지난 40년간 국가에 기여해왔고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수출도 하였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동안 옆과 뒤를 돌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옆과 뒤를 돌아봤으니 꼬리 한번 툭 치면 다 날아갈 것이다. 🐘